

## 악성 흉막삼출액에서 Bleomycin을 이용한 흉막유착술의 시술효과

원광의대 내과 박정현\*, 심혁, 고혁재, 양세훈, 정은택

악성 흉막삼출액은 악성종양의 진행기에서 흉막전이에 의해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중의 하나이다. 반복적 흉막천자나 흉관삽입으로 일시적 증상호전은 있으나 대개는 진행되어 호흡곤란, 흉통 등의 원인이 된다. 흉막저류액이 지속 증가되면 흉막경화제에 의한 흉막유착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흉막경화제로 흔히 사용되는 Tetracycline은 물론 Doxycycline도 1999년부터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으며, Talc는 심각한 부작용이 가끔 보고되고 있어 다른 경화제의 이용이 요구된다.

이에 연구자들은 경화제로서 최근 소개된 Bleomycin을 이용한 흉막유착술의 단기 및 중기효과 및 부작용 등을 전향적으로 확인하였다.

- 1) 대상군은 21예(남15, 여6)로서 중간연령 68세(29-77세)였고, 원발종양은 폐암 17예 기타 4예이며, TNM 병기 III 6예, IV 15예였다.
- 2) 적응증은 배액량이 1일 100cc 이상으로 5일이상 지속되며 총배액량이 1000cc 이상인 경우에 한하였다.
- 3) 시술방법은 전처치없이 Bleomycin 60 Unit를 식염수 50cc와 함께 흉강내 주입후 2시간동안 반복적 체위 변경후, 1일후에 흉관에 의한 배액량을 확인하고, 1개월후에 흉부방사선상으로 재저류를 확인하였다.
- 4) 시술 1일후, 21예중 9예에서 배액이 없었고, 6예에서 배액량이 100cc이하였고, 6예는 100cc이상이었으나 시술전보다 감소하였다. 시술 1개월후 흉부방사선상 21예중 8예는 저류액이 없었고, 6예는 저류액은 있으나 시술전보다 감소하였고, 4예는 시술전보다 저류액이 증가하였고, 3예는 사망하였다.
- 5) 유의할만한 부작용은 고열(>37.5°C) 2예, 흉통 1예였으나, 대증요법으로 쉽게 호전되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Bleomycin에 의한 흉막유착술은 비교적 안전하고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없는 원발성 폐 선암 환자의 병기 판정에 있어서

### Brain MRI의 유용성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영상의학과1, 치료방사선과2

김은혜\*, 문원진1, 변홍식1, 이경수1, 안용찬2, 서지영, 김호중, 권오정

목적: 폐의 원발성 선암 환자에 있어서 뇌 전이는 약 30%의 빈도로 보고되고 있으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환자의 병기 진단에 Brain MRI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연구자들은 임상적으로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없는 폐 선암 환자에서 Brain MRI를 통한 뇌 전이 빈도를 알아보고, 특히 근치적 폐절제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환자의 병기 결정에 있어서 Brain MRI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1999년 5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새로이 원발성 폐 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295명 모두에서 Brain MRI를 시행하였고 이중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없었던 환자 2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 전이의 판정은 Brain MRI 상 뇌실질 내에 조영증강 종괴가 있거나 연수막 조영증강이 있으면서, 두 명 이상의 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였다.

성적: 환자의 연령은 중앙값 61세(범위 27-81세), 남녀 비는 1:0.58이었다. 이중 Brain MRI 시행 전 임상적 병기로 근치적 폐절제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던 I병기에서 IIIA병기의 12.4%(15/121명), 진행성 병기인 IIIB, IV병기의 27.5%(46/167명)에서 Brain MRI 소견으로 뇌 전이가 진단되었다. 뇌 전이 양성으로 판정된 MRI 소견은 조영증강 종괴 56명(91.80%), 연수막 조영증강 4명(6.56%), 기타 1명(1.64%) 순이었다. 병기 진행에 따라 뇌 전이의 빈도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p>0.05$ , test for trend). 병기 IA에서 IIIB 환자의 12.0%(20/166명)에서 Brain MRI 시행 후 임상적 병기가 상승되었으며, 전체 환자군의 무증상 뇌 전이 양성 진단율은 21.2%(61/288명)로 나타났다.

결론: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원발성 폐 선암 환자에서 Brain MRI의 시행은 잠재된 뇌 전이를 진단하여 환자의 병기 판정과 예후 판정에 도움을 주며, 특히 근치적 폐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는 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